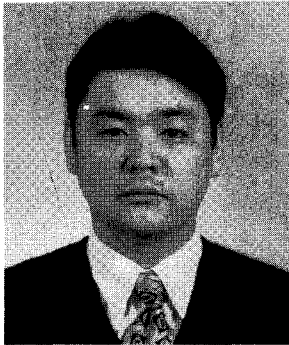


양록업은 분명 가능성 있는 축종



김 한 응
축산신문 편집국 취재부 기자

국내 양록업이 가능성 있는 축종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점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에 대체 사육축종으로 급격히 부각되기 시작한 양록업은 충분한 검토없이 농가들이 앞다투어 사슴사육에 뛰어들었고 사슴 수입 개방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사슴가격 폭락, 사슴방매, 도살 등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아픔을 겪어왔다.

사슴가격의 하락에 따른 신규 사슴사육농가의 증가로 양록업계의 전체적인 규모는 급성장을 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양록업계 자체의 퇴보를 유도하는 요소도 상당부분 자리를 하기도 했다.

사슴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도 전에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는 기존 사슴사육업에 종사해 온 양록인들을 위축시키는데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 것은 물론 양록업계내에 갈등과

불신을 팽배하게 하는 역할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업계내에 나타나고 있는 동향은 개방 초기의 이러한 경향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동안 급등세를 보여왔던 레드디어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해결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사슴가격의 폭락, 방매현상 등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관심밖으로 치부해 왔던 양록산업에 대한 정부인식도 상당부분 개선돼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큰 규모는 아니나 양록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림부를 떠나 미묘하게 얽혀있는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록업계가 요구해왔던 정책적인 제도개선도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까지 발전한데에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정책당국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생산자 단체의 집요한 요구와 뜻있는 양록인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아울러 양록인 스스로가 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양록업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킨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생축용 직관장의 개설, 국산 녹용의 우수성 홍보, 양록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개발 및 판매,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등 양록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산업발전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다시 양록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으로 해서 업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양록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을 비롯 일정규모이상의 전업화를 추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안에 양록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례화되고 있고, 축산기술연구소 등에서 사슴 연구를 본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한 예로 볼수 있다.

이미 2백여두의 사슴사육을 통해 기초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전문연구 과정으로 넘어가는 수준에 올라 있다.

또한 양록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탕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가 하면 녹용가공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도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록업계로 돌아와서도 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짐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중 특이한 것이 대규모 사슴사육 농장의 등장이다.

물론 사슴가격이 떨어지고 기존 사육조건이 비슷한 타 축산업 농가들이 전업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규모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사슴사육규모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양록업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선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부 대규모 사육농가 중에는 사슴을 사육, 고기로 팔아도 소를 키우는 것보다도 소득면에서 낫다는 농가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양록업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것이 녹중탕 가공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양록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폭넓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녹용 생산비가 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역시 생산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같은 수준은 아닐 지라도 상당부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낙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양록업으로 사육

축종을 변경하면서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가 생각 이외로 낙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록업이 손쉽다는 것이다.

양 축종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소에 매달려야하는 것에 비해서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낙농업이 생산된 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는 것과는 달리 판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있으나 판로만 확보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양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낙농업을 하면서 투입했던 노동력을 양록업에 쏟을 경우 생산비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초지조성, 인근 야산 산야초의 개발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양록업계 상황이 기존에 주요 축종으로 대우(?) 받고 거쳐왔던 시행과정을 겪어오고 있는 것인 만큼 현재의 어려움은 산업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가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 단합된 힘을 통한 권리 찾기이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업계의 권익보호 측면이나 내거를 찾아가는데는 부족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막연히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기대심리 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는 책임의식의 배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산녹용을 홍보하기 위한 「자조금」을 모은다든지 양록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내이익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등 지금보다 성숙된 면모를 통해 내거 찾기에 나설때가 도래했다.

양록업은 분명 가능성 있는 축종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느냐하는 것은 양록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업계의 발전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